

안전 취약가구 응급안전체계 구축

광주시, 독거노인 등 8578세대에 ICT 기반 응급 안전장치 설치 활동량·출입구 감지기 등 통해 자동 신고...안심서비스 확대 운영

광주시가 1만 세대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을 확대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 안전장치를 지역 독거노인·장애인 8578세대에 설치하고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응급 안전 장치는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만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60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으며, 119와 응급관리요원의 신속한 대응 등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해당 서비스가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에 효과가 높다고 보고, 올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지난해(7191세대)보다 1387세대 늘린 8578세대로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

신,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수행기관)는 (재)광주시사회서비스원(062-607-5276),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062-234-4564), 서구노인종합복지관(062-366-4081), 남구노인복지관(062-367-6225), 북구노인종합복지관(062-266-2245), 광산구더불어노인복지관(062-960-3913) 등이다.

양혜숙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GCC사관학교 입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남구 광주실감콘테츠큐브(GCC)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입교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에게 학생증을 수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최고 등급' 선정

행안부 실태평가...적기 오류 처리·데이터 신속 제공 등 호평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대국민 수요자 의견 수렴,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데이터 적기 오류 처리 및 신속한 공공데이터 제공 등 총 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민과 데이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2년 연속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광주 '안심 3無 도시' 조성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교통시설 정비·안전 교육 등

광주시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없는 '안심 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3대 분야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69억여원을 투입해 분야별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을 구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 20여개를 확충하고, 교통사고다발지점 13곳에서는 차로를 조정하고 중앙분리대·교통섬 등 시설을 정비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에 환승 주차구역 160곳을 조성하고 견인, 불법 주차차 단속을 위한 민원 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 사랑 실천 약속·가게·숙박업소를 확대해 위험징후 발생 때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한다.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7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자살 예방 교육, 유가족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홍보도 강화한다.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보건 활동,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실천단 참여방식도 다양화한다. 안전신문고,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처럼 시민이 생활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96개 행정복지센터 '안전홍보맨'을 선정·연계해 분야별 예방정보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우회전 일단 멈춤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등 중점 안전주제를 선정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분야 사망사고를 줄이는데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이 시민실천단에 참여해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51억 용자

금리 1%...농가 등 60호 지원

전남도가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대상 60호에 대해 251억원을 금리 1%로 용자해준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최근 금리인상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깔짚 구입 및 축산물 원료 구입 등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축사 신규·개보수·증축 및 내부시설 등 시설자금 44호 대상 234억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구입,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 16호

대상 17억원을 용자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에 30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6억원 이내다. 신청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사료가격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용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 해남산 사용...풀무원 '다진마늘' 인기

출시 2개월 만에 30만개 판매

지난 1월 해남산 남도종 마늘을 활용해 출시한 풀무원 다진마늘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100% 해남산 남도종 마늘을 사용한 다진마늘 제품은 출시 두 달여 만에 약 30만개가 판매됐다. 이에 따른 매출액은 14억 여원이다.

주요 판매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매장이다.

남도종 마늘은 고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다양한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김치의 풍미를 살리고 야삭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뛰어나 김장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함유량이 높아 혈액 순환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속에서 살균·해독작용을 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면역력 증진 및 항암 효과에도 탁월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시공초월(時空超越)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

영암 왕인문화축제 2024

3.28.목 ~ 3.31.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일원

주최 영암군

주관 영암문화관광재단

후원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